

地區로부터 東北向 卽 江과 平行하여 上流쪽으로 六 m 떨어져 역시 같은 方向으로 너비 二·六 m 길이 一五 m의 트렌치를 놓았는데 이 곳은 트렌치의 西南端 卽 A地區쪽으로부터 約 四 m 가량의 部分만 開析되었으나 나머지 大部分은 原來的 表土를 維持하고 있었다. 二十四日에는 表土로부터 五〇 cm 면까지 翌日에는 九〇 cm 면까지 發掘하였는데 대체로 表土下 二〇 cm 면으로부터 遺物이 出土되기 始作하였다. 계속 發掘한 結果 트렌치의 東北端으로부터 대략 九〇 cm — 一〇 cm의 西南向으로 기울어지는 완만한 傾斜를 보이며 遺物層이 끝남을 알았다. 그 밑에서는 黃色 砂質 土가 露出되었으며 다시 幅 一 m 길이 六·一 m의 트렌치를 掘고 그一部는 表土로부터 三·五 m 가량이나 掘土하였으나 遺物은 一切 出土되지 않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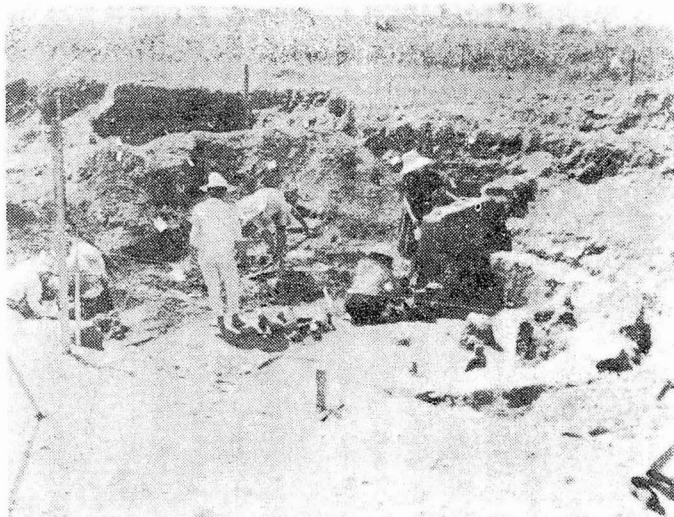
그러나 트렌치의 西南端으로부터 대략 $1\frac{1}{3}$ 地點까지는 遺物이 계속 出土될뿐만 아니라 진흙과 돌로된 爐址의 흔적도 露出되었으며 南南向 卽 球場쪽으로 多數의 遺物이 密集되어 出土되었음으로 그 쪽으로 開析되지 않은 部分을 約 五 m 擴張하여 發掘하였다. 그리하여 보다 큰 진흙과 돌로된 爐址의 遺構를 確認하였으며 表土로부터 대략 九〇 cm — 三〇 cm 사이에 있었다.

트렌치와 그 擴張地域에서도 많은 土器가 出土되었는데 櫛文土器와 더불어 後代의 灰色土器와 黃色土器가 거의 攪亂된 狀態에서 出土되었으며 대체로 上層에서는 後代土器 下層에서는 櫛文土器가 數의으로 보다 많은 比率로 出土되었다. 그 外 土管形의 網錘 把手 管玉 連珠石 石鏃 등의 遺物이 出土되었으며 上層에서는 鐵製釘자와 더불어 用途未詳의 若干의 鐵片이 出土되었다.

그런데 二十八日 트렌치의 西南部分을 表土로부터 一·五 m 면까지 整理한 結果 다시 堅穴住居地의 外廓線이 若干 露出되었음으로 同住地가 位置하였으리라고 豫想되는 地域을 劃定하고 擴大發掘하였다. 그리하여 또 하나의 堅穴住居地를 確認하였다. 이 地域은 거의 球場과 같은 면까지 이미 除土되어 있었기 때문에 上層의 遺物은 散亂되었고 主로 櫛文土器片만이 出土되었다. 그리고 表土로부터 一七七 cm 가량 下部에서

住居地의 中央에서 南向으로 치우쳐서 진흙과 돌로된 爐址의 흔적이 露出되었다. 그러나 二十八日에는 그 下部 表土로부터 約 二〇〇 cm 되는 同住地의 最下面에서 四六 cm × 五〇 cm 程度の 長方形의 片磨岩石과 礫石 一個로된 爐址가 그 中央部에서 發見되었다. 그리고 이 住居地는 橢圓形으로 나타냈으며 表土下 一五〇 cm 면에서 는 大략 長徑이 約 五 m 短徑이 三·五 m 가량 되었다.

以上으로 發掘을 마치기로 하고 A地區를 除外한 發掘地域을 B地區로 바꾸기로 하였다. 그리고 二十九日 午前中에 B地區에 對한 最後의 整理作業을 하고 午後에 이번에 發掘된 A와 B地區의 堅穴住居地의 爐址를 解體하여 撤收하였다.



義城 海望山 石窟寺院

文 明 大

義城에 石窟寺가 있다는 말을 들은 것은 지난 八月 二十三일 浮石寺



에서 黃壽永先生님
으로 부터였다. 黃
先生께서도 二十一
일 安東敎大 柳增善
敎授로 부터 들었다
하면서 調査할 것을
敎示하였다. 傳言으
로는 넓이가 수백尺
이고 그 안에는 新

羅代의 큰 石佛이 있다는 중요한 뉴스여서 가슴을 두근거리면서 그곳을 찾았다. ①

比安面소재지에서 북으로 三km쯤 가면 自樂洞이 길게 휘락울 형성하고 있는데 그 뒷산인 海望山이 마을을 모근히 감싸고 있다. 이 지역 일대는 自然洞窟을 형성하는 岩質이지만 海望山은 특히 層을 이루는 절벽들이 연립하고 있다. 石窟寺는 바로 東麓山頂 가까이 ㄱ字形의 거대한 절벽 아래에 있었다. 東·南向의 ㄱ字절벽이 꺾어지는 부분 東面에 가장 큰 石窟인 法堂窟이 있고 그와 이웃하여 약 一六m 떨어진 역시 東面 岩에 僧堂窟이 자리잡았다. 여기서 약 五〇〇餘m 떨어진 건너쪽 산에도 羅漢窟이라 불리워지는 自然石窟이 있어서 말하자면 三個의 石窟이 하나의 石窟寺院을 이루고 있는 셈이다.

가장 큰 法堂窟은 안으로 들어가면 갈수록 좁아지면서 낮아지지만 대체로 方形의 石室을 이루고 있다. 규모가 一四·二〇m×一三·五〇m 이라는 거대한窟이어서 지금까지 알고있는 自然石窟 가운데 最大의 것이라 하겠다. 內部石壁을 손질한 확실한 흔적은 꼬집어 낼 수 없으나 岩面으로 보아서는 다소 손대었다고 생각되며 前面에는 빗물을 처리하는 水溝外에는 木造를 덮었던 아무런 遺構도 없었지만 瓦片이 散在한 것으로 보아서는 前室이 있었다고 생각하는 게 옳을 것 같다. 입구는 담을 쌓고 방을 만들었던 모양으로 지금도 불탄 구들장이며 담벽의 흔적이 뚜렷이 남아 있다. 石室의 중심쯤해서 自然石 위에 方形의 蓮臺를

놓아 石佛座像을 안치하고 있다.

나발과 肉髻가 뚜렷하며 얼굴은 길쭉하면서도 풍만한 편이다. 눈이 파여졌고 코골이 떨어졌지만 우아한 윤곽은 그대로 남아 있어 아직까지 高麗初期作인 德美 銅造 如來坐像의 수법을 엿볼 수 있다. 하지만 좁아지는 어깨라던가 안으로 모아지는 階段式衣紋 또는 四각형의 몸집은 어딘가 硬化되는 느낌을 물씬 풍긴다. 그것은 下部처리에서 더욱 뚜렷이 보여주는데 가운데를 들어가게 한 외에는 그저 두리뭉실하게 말하자면 발이라던가 무릎이라던가를 전연 나타내지 않고 있다.

이 모든 수법은 到彼岸寺佛과 같은 羅末부터 유행하던 一聯의 佛像樣式^②이라는 것을 쉽게 알 수 있다. 四각형적인 上體나 衣紋처리하는 도 피안사불과 비슷하지만 좁은 몸집은 그 보다 훨씬 떨어져 있고 있으며 하체로 내려올수록 격세의 감을 느끼게 한다. 두리뭉실한 하체 처리는 普門庵 羅漢像이나 禪雲寺 金銅菩薩坐像、圓覺寺塔佛과 같은 羅末 鮮初의 수법과 거의 비슷하며 양팔에서 내려온 옷자락이 두 무릎을 덮어 외운 것까지도 같다. 그러나 두 무릎 사이의 衣紋 처리는 그들의 단순하고 평면적인 것과는 다르게 보다 굴곡적이며 意慾의 이어서 時代의 인 격차를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더욱 裙衣의 앞자락이 禪雲寺나 圓覺寺像 따위에서 定型화된 수평적인 처리가 아니고 흔들림을 나타내고 있다거나 보다 결정적으로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얼굴이나 上體 처리 등에서 이점을如實히 알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이 불상이 차지하고 있는 時代의 위치는 羅末麗初의 인 작품 보다는 격세이면서 麗末鮮初의 양식과는 다른 말하자면 麗末鮮初에 접근한 時代의 高麗作品이라 보면 그렇게 틀리지 않을 것 같다. 臺座는 長方形인데 前面에 七葉、側面에 各五葉의 複瓣蓮花紋이 있으며 그 下段에 心形 眼象이 표현되었다. 불몸이 약한 蓮瓣이나 옆으로 빛진 솜씨는 時代의 인 특징을 잘 나타내고 있으며 眼象의 특징적인 스타일은 高麗後期 以來 李朝에서 특히 流行하던 수법이다. 臺座가 단지 單層뿐은 아니라고 생각되지만 部材가 남아 있지 않아 알 수 없고 佛像

이나 臺座의 背面처럼 리는 아주 조잡하게 한 것으로 보아 벽에 붙었던 것이라 하겠다.

(身高一二七cm 頭高四〇cm 肩幅五一cm 무릎너비六八cm, 무릎높이三五cm 臺高二八cm 幅八九×八八cm)

이 石窟에서 向左로 약 一六m 떨어진 岩壁에 조그만한 石窟이 發現되었다. 自然 洞窟을 파내어 長方形(六m×三m)의 石室을 만들었지만 뒷벽의 낮은 洞窟은 그냥 두고 있다. 前面도 法堂窟에서 볼 수 없는 뚜렷한 人工의 흔적을 볼 수 있을 뿐더러 역시 담이며 구들장들이 남아 있어 온돌방을 만들어 僧侶가 거주하였음에 틀림이 없다. 말하자면 僧堂窟인 셈이다.

羅漢窟은 이들 두 石窟에 비하면 이 산에서 흔히 볼 수 있는 自然洞窟에 불과하다. 長八m 幅三m의 생긴 그대로의窟이어서 쓸모는 그렇게 없을 듯 보인다. 傳해오는 말이나 造像들이 없다면 無心히 지나쳐 버릴 그런 형태다.

羅漢이라 생각되는 坐像片들이 數片 흩어져 있으나 형태나 마다 소집 작게 하는 것은 一片뿐이며 이것도 어깨 이상은 없어지고 아랫부분도 알아 볼 수 없는 조잡스런 坐像片이다. 그러나 菩薩立像 一軀는 머리만 없어진 채로 거의 완전하게 남아 있으며 수법도 우수한 편이다. 반듯하면 서도 당당한 체구나 튀어나온 가슴, 잘숙한 허리, 세가닥의 「상각기」자락들은 新羅菩薩 그것이라 생각될 만큼 秀作이지만 縱線으로 내려지고 있는 天衣나 流麗하지 못한 거친 刻法 따위는 역시 時代의 下降을 뜻한다고 생각된다. (全高 六九cm 肩幅 三三cm)

法堂窟, 僧堂窟, 羅漢窟의 三石窟이 하나의 石窟寺院을 이루고 있는데 造像으로 보아 高麗中期에 경. 되었다는 것이 틀림이 없다면 高麗石窟寺院을 研究하는데 매우 귀중한 자료가 아닐 수 없다. 이렇게 거대하고 또 數窟이 조합되어 일개 自然石窟寺院을 이루고 있는 이 같은 石窟

이 高麗中期에도 여전히 景營되고 있다는 사실은 築造石窟의 새로운 發現이나 磨崖石窟의 盛行하던 景營과 함께 高麗時代에도 石窟寺院造營 분이 여전히 있었다는 것을 단적으로 말해준다.

- ① 自樂洞 人 金允淸氏의 안내를 받아 三窟을 겨우 찾았다.
- ② 金元龍 「普門庵石造羅漢像」美術資料七號

晦齋遺蹟 香壇에 對하여

鄭 明 鎬

지난 數個月間 全國에 散在하여 있는 石燈資料를 收集 및 現況實態調查를 위하여 踏查途中 九月中旬頃에 慶尙北道 月城郡 玉山洞에 所在하고 있는 玉山書院을 찾아보게 되었다.

이 玉山書院 求仁堂 前庭에는 石燈資料가 있으므로 이를 調査하기 위하여 찾아 본 것이다. 現在 이 石燈은 火舍石以上部材를 除外한 他部材만이 남아 있다. 아마도 이 部材는 이 곳에서 約二km 떨어진 淨惠寺址에서 移置한 것으로 推定되어 진다. 이 石燈部材調査를 마치고 書院과 晦齋先生님의 遺蹟을 살펴보게 되었다.

玉山書院은 李朝 宣祖五年에 晦齋 李彥迪先生을 奉祀하기 위하여 그의 孫子 求庵公이 當時 慶州府尹과 協議하여 華蓋山下에 書院을 創建하게 되었다 한다.

晦齋先生님은 成宗 二十二年 弘治 四年 辛亥 十一月 二十五日(西紀一四九一年)에 驪州李氏인 父 蕃과 母 良洞孫氏 사이에서 誕生한 李朝의 名儒이시다.

이는 九歲때 父를 여이고 慶州良洞에 사시는 外家에 들어가 成長하면서 學門에 힘써 中宗九年(一五一四)에 乙科 級第하여 天官郎을 비롯하여 仁同縣監 掌令 密陽府司 等を 歷任하고 또 宗簿寺 僉正 直提學 全州府尹에서 嘉善에 올라 禮曹參判 右贊成 議政府 右贊成까지 이르렀으나 乙巳士禍를 당하여 江界에 귀양가서 死亡하신 분이시다.